

학교 전쟁 School Battle

subtitle script

1. 프롤로그

위에서 내려다본 학교 부감샷. 전쟁이 지나간 듯 폐허가 된 학교 곳곳의 이미지들... 암전.

(사운드) 위이이잉—사이렌 소리, 총소리, 비명소리, 확성기 소리 등이 섞여 아수라장이다.

V.O (AM 라디오 재난 방송 or 헬기 방송)

시민 여러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포 되었습니다. 지금밖에 계신 모든 시민들은 경찰과 군인들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

Citizens!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s declared. We have entered a national emergency now. All people outside will be assisted by the nearest police and soldiers to proceed to a safe designated location..

굉음으로 변하는 헬기 소리. 계속되는 사이렌 소리와 헬기소리 멀어지면서...

(자막)

이 영상은 3개월 간 사망자 30만여 명, 격리수용자 500만여 명의 사상 초유의 재난이 된 '11.16 국가비상사태' 선포 당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휴대폰 영상, CCTV 등을 재구성하여 편집하였다.

This film is are construction of an unprecedented disaster '11/16 state of emergency' which caused three hundred thousand deaths and over five million quarantined during three months, based on cell phones,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etc. video clips found in a high school at that time.

암흑 속, 다급하게 얘기하는 두 남학생의 소리.

신구

(숨 몰아 쉬며) 혁혁... 봤어? 선발대 애들... (격앙) 다죽은 거 맞지?
Huff.. Did you see that? The advance team.. They are all dead, right?
나가면 다 죽는 거야?
We all die if we get out?

상혁

(공포를 누르며) 아 씨.. 애들한테 알리지 마.
Shit.. Don't tell them yet.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가?!

To where and how do we even escape?

신구

아 몰라... 나 무서워 죽겠단말이야.
I don't know... I'm scared to death now.

상혁

(숨 죽여) 조용히 좀. 안에애들 들겠어. 후... (숨 돌림)
Be quiet. People inside might hear us.

2. 매점/밤

컴컴한 어둠 속, 해진의 훌쩍거리는 소리. 조금씩 드러나는 웅크린 아이들의 모습(시은, 인성, 해진, 신구).

시은
(상혁을보며) 아 나도 찍어야지. (핸드폰 켜는)
I gotta shoot a video too.

이제 화면은 시은이찍는 화면으로 바뀐다. 겁에 질린 아이들 얼굴 하나씩 비추면, 해진 흐느낀다.

해진
(홀쩍) 먼저 나간 애들은 왜 안오는거야? 한시간 안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올 시간 벌써 지났잖아...
Why aren't they coming back yet? They said they'll be back in an hour.. The time already passed..

신구
야 야 우는 소리 좀 그만 해
Hey, hey, would you just stop whining.

답답한 듯 휴대폰을 켜는 인성, 혹시나 이리저리 폰을 옮겨보며 통신을 시도하고. 모두들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데... 고개흔들며 털썩 주저앉는 인성. 다들 한숨 내쉬는다.

인성
안 돼..
No...

상혁
전화도 와이파이도 계속 안되는 걸 보면. 바깥에 뭔가 큰일이 난 거 같긴 하다...
Telephone and Wi-Fi still don't work. It looks like there's something big going on outside..

신구
야, 너희들, 전파 안 잡히는 폰 켜고 있으면 배터리 금방 떨어져! 빨리 꺼.
Hey, guys, there's no Wi-Fi here and the battery won't last long if you keep it turned on! Just turn off your cell.

시은
난 보조 배터리 있으니깐, 되는데까지 계속 찍을거야. 누군가 기록은 해야지.
I have a spare battery so I'll take as many videos as possible. Somebody has to keep a record.

신구
(해진에게) 야 넌 그만 좀 울어. 너 안 힘드냐? 그 체력이면 운동을 했어야지 연예인 지망생은 무슨..
Hey, you. Stop crying. Aren't you tired? With that energy you should've become an athlete not a would-be celebrity.

상혁
(소리 죽이며) 야 쏘! 조용해봐. 애들아... (긴장) 저 소리 들려??
Hey, sh! Keep it down. Guys.. Do you hear that sound?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저멀리에서 조그맣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삐그덕... 삐그덕...

상혁
어젯밤에도 계속 저 소리 나던데...(두려운) 도대체 뭐야...
I heard that sound last night, too.. What the hell is that...

3. 매점/다음날

어둠 속 휴대폰 카메라 라이트 켜진다. 상혁의 카메라는 곧 매점 안에 웅크려 자는 아이들을 훑는다. (CCTV) 문 앞에 앉아 보초를 선 신구는 졸고 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공간이 그나마 파악되는데... 오물에 뒤섞인 쓰레기들. (시간 경과) 시은의 폰이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따라가 신구의 얼굴을 비춘다. 신구, 페트병째물 마시다가

신구
(푸악물을 뿜어내며) 으악~~ 뭐야 이거? ...
누가 오줌통 여기다 뉘어? 아 뉘... 오줌 먹었잖아아!! 으악!! 시팔!!
Arrrgh! What is this? Who put the pisspot here? Ugh.. Damn it, I drank it, fuck!

신구의 괴성에 다들 놀라 눈을 뜨는데. 그 경황에서도 신구를 보고 웃는 아이들. 해진이 깔깔 웃어제끼다.

신구
아 웃지마!
Don't laugh!

극한의 공포 속에서 잠시나마 풀어지는 분위기. 시은의카메라는 혼자 등을 보이고 누워있는 상혁에게 다가간다. 그 때, 멀리서 들리는어떤 소리. 지익- 쿵 지익- 쿵... 덜컹덜.. 무언가부딪히는 소리.

상혁
(화들짝 놀라 둘러보며) 애들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소리 왜 또 들리지?
Guys, wait, wait wait. What's that sound again?

신구
우리 나가봐야 되는 거 아냐?
Shouldn't we take a look outside?

일어나 바짝 긴장하는 아이들.

4. 매점/밤

세워놓은 폰 화면(로우앵글). 어둠 속. 라면 봉지를 뜯는 아이들. 시은, 화면 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앵글을 만진다.

신구
(시은 보며 고개 절레절레) 시은이 너는 카메라 집착 좀 그만하지? 내가 니 실험영화 주인공이냐?
(버럭) 이러다 장렬히 죽음을 맞는?
Si-eun, can't you just let go of the video? Am I the main character of your experimental film?
The one that dies gloriously?

시은
넌두시지? 난 내 보조배터리가타서 없어질 때까지 찍을거니까.
None of your business. I'm going to take it until my spare battery wears out.

다른 아이들, 아랑곳 않고 생라면을 우걱우걱 씹어먹는다. 지친 모습이다.

신구
야 그리고 이제부터 라면 일인당 하루에 한 개씩이다.
From now on, we'll have one ramen(noodle) pack for one person a day.

인성
야...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Hey, what are you to order us around?

상혁
아냐 신구 말이 맞아. 누군가는식량 관리를 해야할 거 아냐
Well, I think Sin-gu has a point. Somebody has to control the amount of food.

인성
야 애가 뭔데? 코빼기도 안보이던운동부 주제에
What is he? You're just a school athletic team guy who didn't even show up for classes.

신구

훗. 그러는 넌 뭔데? 마마보이 전교회장이 여기서도 먹힐것 같냐 새까.
Hah, what are you then? You think a mama's boy school president title would work here, jerk?

시은

니네 그만 좀 해! 지금 중요한건 우리가 여기서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는가야!
Stop it, both of you! The important thing now is how much longer we can hold out ourselves here!

상혁

(짜장 스프를 뿌리며) 그래도 오늘은 짜장라면이네. (억지웃음)
At least we got a tasty(black soybean sauce) ramen for today.

해진

... 따뜻한 라면 국물 먹고싶다... 죽기 전에 끓인 라면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I wanna have ramen(noodles) in hot pot.. No more wishes before I die if I can have a cooked ramen..

시은

아... 라면 국물..
Ah.. The hot soup of ramen..

모두들, 라면 국물 생각이 간절한지 잠시 말이 없다. 우걱우걱 생라면을 씹는 아이들.

해진

(흐느끼며)... 흑... 나 더이상 여기 못있겠어. 우리 나가보자 응?
Sob.. I can't stand here anymore. Let's go outside.

상혁

나간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어. 그니까일단 여기 있는게 나아.
There's no guarantee that we'll survive if we go out. So it's better to stay here for now.

인성

근데 처음에 방송 듣고 나간 애들은 살았을까? 우리 나갔어야 되는 거 아냐?
But the students who went outside after the announcement, will they be alive? Shouldn't we have left here?

신구

야 이 붕신아 그걸 몰라서 물어 개네들 다 좇됐..
Hey you idiot, don't you know they all became fucking d...

상혁

(신구 막는) 야!
Hey!

인성

야... 니네 왜 그래? 니네 뭐 알아? 불안하게 왜이래?
What's wrong? You know something? You're making me nervous.

상혁

(수습) 그런 거 없어
It's nothing.

인성

없긴 뭐가 없어? 제발 좀 아닌 척 좀 하지말고 좀 말하라고. 니가 뭐 여기 뭐 리더야?
Nothing what? Don't pretend like you don't know, just share it. You think you are the leader here or something?

상혁

누가 리더래? 나 니들 리더따위 할 생각 없어. 그딴 거 관심도 없다고.
Who says so? I don't wish to be a freaking leader here. Not even interested.

인성

그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고. 뭔가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Then stop ordering what to do, just tell anything you know.

상혁

야... 나도 무서워. 나도 똑같이 무섭다고. 근데...살아야될 거 아니야! 나도 살고싶어서 이러는 거야!
Dude.. I'm scared too. I'm scared just like you but.. We gotta live! I'm doing this because I too want to live!

인성, 할말을 잃고. 친구, 믿음직하단 눈으로 상혁을 본다.

상혁

(잠시 침묵 후) ... 중요한 건, 무조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해.
... what is important is, each one of us must survive at one's own risk.

시은

맞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바보지...
Right. Doing as one is told is a fool..

해진

(얼 빠진 상태) 난 나가야겠어. 너무 무서워...죽어도 여기서 죽긴 싫다구!
I gotta get out of here. I'm so scared.. Even if I die, I don't want to die in here!

상혁

(발끈)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 니 맘대로 해. 책임은 셀프니까.
Yeah, you wanna go out? Go ahead! It's up to you. Take responsibility for yourself.

해진이 벌떡 일어나 문쪽으로 달려간다. 친구가벌떡 일어나, 해진을 앞질러 두 팔로 가로 막는다.

해진

악!! (울부짖으며) 비켜 난 나갈거야! (친구 팔 뿌리친다)
Aarrgh, move, I gotta go!

친구

(뒤에서 꺼안고 입 막는다) 잠깐 닥치고 조용히 좀 있어봐. 아 조용히 좀 하라고!
Wait, shut up and be quiet. Oh, just shut it!

들려오는 덜컹덜컹 부딪힘 소리. 상혁, 문 쪽으로 다가가 폰 꺼고 본다.
(시간경과) 상혁이 문 앞에 바짝 귀를 대고 있다.

상혁

잠잠해진 것 같아.
It became silent.

문 앞에 쌓아놓은 집기를 치우고 울부짖으며 문을 열고 나가는 해진.친구가 해진을 따라 달려 나간다.

5. 복도/밤

복도의 바리게이트 앞에 선 아이들(줄이 늘어진 CCTV 화면).
어둠 속 복도를 걷는 일행. 바리게이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인성이 책걸상 무더기를 건드려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인성 (V.O)
(다리를 다쳐 아픈 듯) 아...
Ah..

해진
(히스테리) 야! 그럴거면 따라오지 마. 왜따라와서 난리야?
Hey! Don't follow if you are going to act like that. Why are you making such a fuss?

상혁
지금 그런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Now is not the time to argue.

신구
(성큼 앞으로 나서며) 내가 앞장설게!
I'll take the lead!

시은
(폰 화면을 들여다 보다) 응 근데 이건 뭐지?
Mmm, what's this?

시은이 앵글을 줌으로 당겨보면, 복도 끝에 희미한 실루엣. 헉, 모두 얼음처럼 멈춰서고.

상혁
잠깐만. 저거 사람인가... (멈칫하다가) 기다려봐 여기에...내가... 가볼게.
Wait, is that a man? Wait here... I'll... go check.

신구
나도 같이 가.
I'll go with you.

인성 (V.O)
야! (속삭이며) 그냥 돌아가자....(겁에 질려) 뭔지도 모르잖아..
Hey! Let's just go back... We don't even know what it is..

조심스레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상혁과 신구의 뒤를 시은이 폰을 들고 따라간다. 점점 가까이 보이는 복도 끝의 형체. 건물 밖에서 비추는 달빛을 받아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만히 서있는 사람의 형상. 그쪽으로 살금살금 접근해 가는 상혁과 신구. 상혁, 정장폭 옷에 단발머리를 한 실루엣을 알아본 듯.

상혁
잠깐만. 내가 아는 사람인것 같아. 기다려봐봐...
(낮은 목소리로) 쌤! 역사 쌤 맞죠?
Wait, I think I know her. Wait a sec.
Ma'am? You are my history teacher, right?

시은이 그쪽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춘다. 갑자기 신구가 상혁을 나꿔채 잡아 당긴다. 동시에 빛을 향해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역사선생님, 이빨을 딱... 딱... 부딪치고 있다. 파리한 얼굴에 노란 눈동자!!

상혁
악!!! 선생님!!!!
Aargh!!! Ma'am!!!!

신구는 상혁을 이끌며 매점쪽으로 뛰기 시작하고.
더이상 사람이 아닌 역사선생님은 아이들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 온다.

뛰어가는 아이들. (CCTV 화면이 바닥에 툭 떨어져비스듬하게 복도를 비춘다)
도망가다가 중간에 주저 앉아 있는 해진을 들쳐 옹고 매점으로 다시 달리는 친구. 아이들은 매점쪽으로 달려가 아
까 인성이 무너뜨린 책걸상 무더기로 정신없이 바리케이트를 쌓는다.

- 학교전쟁 -
School Battle

타이틀 뜨고. 엔딩 크레딧.